2019년 1월 21일

KIWOOM *Weekly*

한, 미 IT 실적에 주목

이번 주 한국 증시는 IT 업종이 시장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 특히 (22일) IBM, (23일) ASML,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램리서치, (24일) 인텔 등 미국 주요 IT 업종 실적 발표와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관련 업종의 등락이 예상되기 때문. 한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및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에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 개선은 이어질 듯

특히 월요일 중국 성장률과 실물경제지표 결과 또한 주목. 이 결과에 따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할지, 또는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 더불어 월요일에는 브렉시트 관련 영국 정부의 2차 대안이 발표, ECB 통화정책에서의 드라기 총재 발언과 셧다운 관련 이슈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듯. 이를 감안하여 KOSPI는 2080~2150pt, KOSDAQ은 680~710pt 내외 전망.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
ehdwl@kiwoom.com

RA 김세헌
02) 3787-5150
saehun.kim@kiwoom.com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지난 주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에 힘입어 2.35% 상승. 중국은 발전계획위원회에서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을 높이는데 주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 더불어 1월 1일부터 지방채 발행 허용 규모가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향후 인프라 투자 증가가 기대되면서 중국 경기 우려 완화. 미국은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호조와 미 연준 퀄스 부의장의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한 점이 경기 둔화 우려를 축소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 높아짐.

목요일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와 ZTE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으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다시 부각되었으나,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수입품에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투자심리는 다시 위험자산으로 쏠림. 추가적으로 수급 개선 또한 긍정적이었음.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결국 KOSPI는 48.71pt(+2.35%) 상승한 2,124.28pt에 마감했으며, KOSDAQ은 10.01pt(+1.46%) 상승한 696.34pt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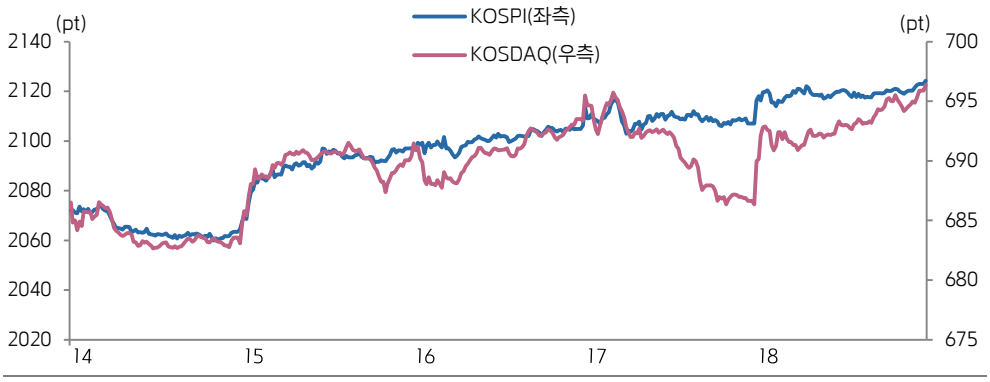
업종별로 보면 증권(+6.64%), 기계장비(+5.27%), 의료정밀(+3.75%), 전기전자(+3.08%)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의약품(-1.99%), 음식료품(-0.11%) 등은 하락.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지난주에 이어 전기전자(+4,794억원) 위주로 6,597억원 순매수. 기관은 금융(+695억원), 운수창고(+547억원), 철강금속(+32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전기전자(-2,230억원), 건설(-151억원) 업종을 순매도.

KOSPI, KOSDAQ 투자지표 변화(12개월 Forward 추정치)

	KOSPI		KOSDAQ	
월/일	PER(배)	PBR(배)	PER(배)	PBR(배)
1/14	8.91	0.81	16.25	2.17
1/15	9.09	0.82	16.34	2.19
1/16	9.14	0.82	16.37	2.17
1/17	9.16	0.83	16.15	2.13
1/18	9.16	0.83	16.15	2.13

자료: Quantiwise, 키움증권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 경제지표 동향 및 이벤트 일정

이번 주는 ①IT 업종 실적 발표, ②셧다운 이슈, ③브렉시트, ④ 중국 실물 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먼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셧다운과 브렉시트 이슈인데, 브렉시트 관련 이슈는 21일 영국 정부의 플랜 B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난 19일 노동당이 관세 동맹 잔류를 포함한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거나 제2국민투표만이 남았다고 발표해 정부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 메이 총리는 주말에 독일과 프랑스, EU 의장 등과 전화 통화를 하며 재협상을 타진 했으나, 여전히 진전이 없는 모습.

한편, EU의장을 비롯해 일부 관계자들은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EU 관리들이 3월 29일 시행되는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언급. 특히 5월 23일 EU의회 선거 및 7월 2일 EU의회 개원 이후로 미뤄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발표. 이러한 영국과 EU의 최근 행보를 보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기에 관련 이슈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적.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과 DACA 프로그램 연장안을 맞바꾸는 제안을 발표.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이를 반대한다고 발표해 여전히 '강대강'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음.

한편,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를 비롯해 많은 연준위원들은 물론 S&P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 등은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을 표명. 백악관도 셧다운으로 1주일간 GDP성장률이 0.13%p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 금융시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언젠가는 끝나는 이슈라고 평가하며 영향은 제한. 그러나 장기화기 진행되면 향후 1,2월 미국 경제지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당장 3월 1일 부채상한한도 협상을 앞두고 정치권의 마찰은 향후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

이와 함께 21일 한국 시각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4분기 GDP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제지표도 주목. 시장참여자들은 4분기 중국 GDP성장률을 6.4%로 전망하고 있으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 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결과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주목하는지 또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 방향이 달라질 듯. 그렇기 때문에 21일 11시 이후 중국 주식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미국 S&P500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현재 S&P500 중 11%가 실적을 발표 했으며 이중 76%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으며, 매출액은 56%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은 4분기 S&P500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9년 1분기는 1.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특히 IT 업종은 4분기에는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추정 했으나, 1분기는 4.7%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결국 IT 업종의 실적 부진 또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

이런 가운데 이번주에는 주요 IT 업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짐. 특히 ASML을 비롯한 인텔 등 IT 부품 장비 소재 업종의 실적 발표가 주를 이룸. 최근 관련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물론 이미 많은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

주요 IT 기업 실적 발표 일정

(22일) IBM,
(23일) ASML,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램리서치,
(24일) 인텔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25일) LG이노텍, 삼성SDI

S&P500 4분기 영업이익, 매출액 변화

	영업이익(yoy)			
섹터	09/30	1/11	1/18	조정폭
에너지	95.4%	73.0%	70.7%	-2.3%
산업재	20.6%	14.4%	15.1%	0.7%
커뮤니케이션	16.4%	13.6%	13.7%	0.1%
경기소비재	16.1%	11.6%	11.9%	0.3%
헬스케어	12.2%	10.9%	10.8%	-0.1%
금융	19.8%	10.4%	10.7%	0.3%
S&P500	**16.7%**	**10.6%**	**10.6%**	0.0%
부동산	9.1%	8.3%	8.2%	-0.1%
소재	17.6%	5.7%	4.5%	-1.2%
IT	8.9%	3.5%	3.4%	-0.1%
필수소비재	6.7%	2.9%	2.9%	0.0%
유틸리티	10.2%	-5.5%	-6.4%	-0.9%

	매출액(yoy)			
섹터	09/30	1/11	1/18	조정폭
커뮤니케이션	18.8%	20.3%	20.2%	-0.1%
부동산	10.7%	10.8%	10.8%	0.0%
소재	5.7%	9.9%	9.5%	-0.4%
에너지	14.0%	9.3%	9.0%	-0.3%
헬스케어	5.8%	5.9%	7.3%	1.4%
S&P500	**6.8%**	**5.9%**	**6.0%**	0.1%
산업재	6.7%	5.4%	5.4%	0.0%
경기소비재	5.9%	4.6%	4.7%	0.1%
금융	4.9%	3.5%	3.1%	-0.4%
필수소비재	2.5%	2.0%	2.0%	0.0%
IT	5.2%	1.6%	1.5%	-0.1%
유틸리티	-4.8%	-0.7%	0.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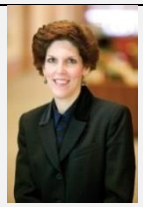
자료: 팩트셋,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01.21~01.25)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01월 21일	월	한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11월	NA	1.6%
			~20일까지 수출	12월	NA	1.0%
			~20일까지 수입	12월	NA	2.2%
		중국	GDP성장률 YoY	4분기	6.4%	6.5%
			산업생산 YoY	12월	5.3%	5.4%
			소매판매 YoY	12월	8.1%	8.1%
			고정자산투자	12월	6.0%	5.9%
		독일	생산자물가지수 YoY	12월	3.0%	3.3%
		영국	브렉시트 영국 정부 대안 발표			
		미국	휴장			
		발표	IMF 세계 경제 전망			
01월 22일	화	영국	실업률	11월	4.1%	4.1%
		독일	ZEW서베이 예상	10월	-18.8	-17.5
		미국	기존주택매매 MoM	12월	-0.9%	1.9%
		원유	EIA 시추생산성 보고서			
		포럼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24일)			
		실적	(장 시작 전) J&J, UBS, 할리버튼, 트레블러스, 스틸 다이나믹스			
			(장 마감 후) IBM, 케피탈원			
01월 23일	수	일본	수출 YoY	12월	-1.9%	0.1%
			수입 YoY	12월	4.0%	12.5%
		미국	FHFA 주택가격지수 MoM	11월	NA	13.5%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1월	NA	-8
		중앙은행	BOJ 통화정책회의			
		실적	(장 시작 전) P&G, 에봇, ASML, 킴벌리 클락, 컴캐스트			
			(장 마감 후) 포드, PTC, TI, 자일링스, 램리서치			
01월 24일	목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	1월	-6.7	-6.2
		독일	마킷/BME 제조업 PMI	1월	51.1	51.5
			서비스업 PMI	1월	52.0	51.8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213K
			마킷 제조업 PMI	1월	NA	53.8
			마킷 서비스업 PMI	1월	NA	54.4
			선행지수	12월	-0.1%	0.2%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1월	NA	3
		중앙은행	한국은행 금통위			
			ECB 통화정책회의			
		발언	드라기 ECB 총재			
		실적	(국내기업) SK하이닉스			
			(장 시작 전) 인텔, 브리스톨 마이어스, 유니온 퍼시픽			
			(장 마감 후) 스타벅스, 인튜이티브, 웨스턴 디지털			
01월 25일	금	일본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12월	0.2%	0.4%
		독일	IFO 기업환경	1월	100.5	101.0
		미국	내구재주문 MoM	12월	NA	NA
			신규주택매매 MoM	12월	NA	NA
		실적	(국내기업) LG이노텍, 삼성SDI, 삼성중공업			
			(장 시작 전) 에브비 닥터호튼, 넥스트 에너지, DR호튼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지역	Board Member				
이름	제롬 파월	리처드 클라리다	랜들 퀄스	라엘 브래이너드	미셸 보우먼
성향	중도 비둘기파	비둘기파	중도 매파	비둘기파	중립
투표권	O	O	O	O	O
발언일자	1월 10일	1월 14일	1월 17일	2018년 12월 3일	2018년 5월 15일
발언 내용	미국 경제지표는 올해에도 좋은 모멘텀을 유지 할 것.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금리인상에는 인내심을 가질 것. 셧다운이 길어지면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음.	올해 성장률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함. 정책을 미리 정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썬 인내 가능한 상황임. 올해 FOMC 매우 큰 인내심 발휘가 가능함.	실물 경제지표는 매우 강하며 지속적으로 강할 것을 예상. 고용 창출이 견조하며, 물가는 잘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타당. 또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적에서 중립적으로 이동할 것이나, 속도는 제한적일 것.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는 원활하게 진행 중.	금융위기 이후 부과된 일부 규제들이 소규모 은행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지역	보스턴	뉴욕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이름	에릭 로젠그렌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스터	제임스 블라드	에스더 조지	패트릭 하커
						
성향	매파	중도	매파	비둘기파	매파	중도 비둘기파
투표권	⊙	O	x	⊙	⊙	
발언일자	1월 10일	1월 18일	1월 4일	1월 10일	1월 16일	11월 16일
발언	여전히 경제가 잠재 성장 여력보단 높을 거라 예상. 다만 현재 연준은 상황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	올해 성장률은 2.0~2.5%로 완화 예상. 지표 의존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자산조정도 경제 상황에 달려있음.	당장 금리 인상 필요가 없음. 금리 인상 전 경제 평가 시간을 가져야 할 것. 올해 여전히 1~2회 금리인상 전망	현재 정책 금리 수준이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 넘었음. 연준의 자산 축소가 주는 시장 악영향은 안보임	극심한 시장 변동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물가 압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함	내년과 그 다음해 상반기까지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3%까지 천천히 금리를 올릴 수 있음

지역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댈러스	리치몬드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이름	닐 카시카리	찰스 에반스	로버트 카플란	토마스 바킨	메리 데일리	라파엘 보스틱
성향	비둘기파	비둘기파	중도 매파	매파	비둘기파(예상)	중도 비둘기파
투표권		⊙		x	x	x
발언일자	1월 15일	1월 9일	1월 3일	1월 4일	1월 18일	1월 10일
발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지지할 만한 경제지표가 없다. 과열 징후도 없다.	연준은 다음 금리 인상까지 시간을 가져야 함. 경제에 따라 통화정책 변경 여부가 달라짐.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연준은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취해서는 안 된다.	올해 경제가 작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올해 경제 성장은 견고한 수준을 기록할 것. 금리 인상과 관련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함.	경제가 기본적 전망에 부합한다면 통화정책을 제약적으로 운영할 필요 없다고 생각.

자료: 각 언론사, 키움증권, (투표권은 2019년 기준, X는 2019투표권 제외 위원, ⊙는 2019년 투표권 발생 인원)

3. 한국 증시 전망

이번 주 한국 증시는 IT 업종이 시장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 특히 (22일) IBM, (23일) ASML,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램리서치, (24일) 인텔 등 미국 주요 IT 업종 실적 발표와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관련 업종의 등락이 예상되기 때문. 한편,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및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위험 자산 선호심리 개선은 이어질 듯.

특히 월요일 중국 성장률과 실물경제지표 결과 또한 주목. 이 결과에 따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할지, 또는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 더불어 월요일에는 브렉시트 관련 영국 정부의 2차 대안이 발표, ECB 통화정책에서의 드라기 총재 발언과 셧다운 관련 이슈 또한 시장에 영향을 줄 듯. 이를 감안하여 KOSPI는 2080~2150pt, KOSDAQ은 680~710pt 내외 전망.

요일	한국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	요일별 주요 내용
1월 21일(월)	월) 중국 실물경제지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 및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월요일 한국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이어지며 반등 지속 전망. 다만, 중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변화 예상되기에 관련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월 22일(화)	월) 브렉시트 영국 정부 대안	월요일 미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관련 대안 제출 내용에 따라 변화 예상. 화요일 한국 증시는 영국 브렉시트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예상
1월 23일(수)		화요일 글로벌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국제유가 변화에 주목 할 듯. 수요일 한국 증시는 IBM실적 결과에 따라 전기 전자 업종이 변화를 주도 할 듯
1월 24일(목)	수) 미국 IT 부품업종 실적 목) 한국 금통위 목) SK하이닉스 실적	수요일 미 증시는 주요 IT 부품 업종의 실적 발표에 따라 등락 예상. 목요일 한국 증시는 SK하이닉스는 물론 TI, 램리서치 등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관련업종이 변화를 보일 듯
1월 25일(금)	목) ECB 통화정책 회의 목) 인텔 실적 발표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ECB 통화정책에서 경기 부양정책 지속 발표에 힘입어 반등 예상. 금요일 한국 증시는 인텔 실적 발표 및 ECB 통화정책 결과에 따라 변화 예상